



한·일 통화스왑 700억 달러로 확대

최 원 선임연구원

■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0월 19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 간 통화스왑을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 현재 한·일 간 통화스왑은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달러·원/엔 통화스왑 100억 달러와 원·엔 통화스왑 30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음.
- 이번 합의를 통하여 CMI 통화스왑 이외 한국은행과 일본 재무성 간 300억 달러 규모의 달러·원/엔 통화스왑을 신규로 설정하고,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간 원·엔 통화스왑을 기존 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함.
- 한국 인출 시 한국은 7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제공하는 대신 일본은 300억 달러 상당의 엔화와 400억 달러를 제공해야 하며, 반대로 일본 인출 시 일본은 7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제공하고 한국은 300억 달러 상당의 원화와 400억 달러를 제공해야 함.

■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 정상은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교섭을 추진하기로 함.

-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한국과의 FTA 체결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함.
-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체결 원칙은 동의하나, FTA 체결은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종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함.
- 한국은 한·미, 한·EU FTA 협상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과 달리 한·일 FTA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한·일 무역역조에 대한 업계의 시각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됨.

(한·일 통화스왑 700억 달러 확대 합의 등, 기재부 등, 10/19)